

## 광주·전남 갈라치기... 지역 경쟁력 흔들린다

혁신도시 지역인재·공항 문제 등 지역 현안마다 상생 아닌 대립  
의대 유치는 목포·순천·여수 다름

광주·전남이 핵심 현안을 놓고 서로의 이익에 따라 지역 간 경쟁·갈등 구도를 부추기는 듯한 행태가 있다. 또 전남지역 내 시·군들도 지역 자원의 이익보다는 소지역주의에 매몰돼 정부사업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 상생·호남 전체 이익'이라는 인식이 열리지 않으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국립 의대, 국제공항 활성화 등 현안이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감대 확산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갈라치기 이슈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신민호(민주·순천 6) 의원은 지난 제 373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과정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광주(지역 대학) 출신(인재)에 편중돼 전남(지역 대학) 출신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며 "지역인재 채용 시 전남 몫을 사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채용해야 하는 지역인재의 절반은 전남 몫임에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보면 광주(소재 대학 출신) 등은 88%, 전남지역 대학 출신은 단 12%에 불과하다"면서 "지역인재 채용은 소멸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의 타지 유출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 광주 출신자에 쏠림현상이 나타나 전남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등 제도적 맹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더 나아가 "광주에 (공동혁신도시 조성)를 위한 전남측) 자원을 매각했다, 왜 밥그릇을 못찾고 있는가, 언제나 (광주에) 퍼주기식으로 가고 있다"고까지 했다.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한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지만 혁신도시 이전기관 내 광주 인재 채용 비율의 경우, 전남 출신 인재가 광주 소재 대학을 졸업한 뒤 이전공공기관에 취업한 경우를 포함하는 만큼 지역인재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판단했다는 지적이 의회 내부에서도 나온다. 저출생, 수도권 집중화, 기업 유치 등에 대한 종합적 고민 없이 출신 대학별 채용 할당만 강조한 '반쪽짜리'라는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취지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상생발전 관점에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게 아니라, 서로 뺏고 뺏기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광주와 전남을 갈라치기'는 격정이 나온다.

국립 의대 설립 문제는 전남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생 발전을 위한 고민보다 지역 간 소지역주의를 부추기는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립 의대의 전남 지역 유치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지역마다 '자기 지역 유치'를 내세울 경우 자칫 소지역주의로 흐를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지역의 중론이다. 그럼



"더워요, 너무 더워요" 광주·전남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지난 31일,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공사현장 근로자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얼음을 마시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에도, 전남도의회를 중심으로 순천과 목포에서 잇따라 '전남 의대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여는 가운데, 여수 출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수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설치 문제까지 공론화하는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안공항의 민간공항 이전 문제도 비슷하다.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 전체와 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 장점을 확대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고민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해묵은 이기주의로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10년 '광주공항은 계속 존치해야 한다'며 무안공항으로의 통합을 거부했다. 그러다 2018년에는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했고, 2020년에는 "군 공항 이전과 별개로 민간 공항은 약속대로 무안 공항으로 이전·통합하겠다"고 했지만 6개월도 못가 "민간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해결하겠다"고 변경했다.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와 광주 군공항이전이 동시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 이전 관련 지자체들의 상생 의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지적이다.

최근 선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도 미덥지 못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남도는 광주·전남 상생 1호 공약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집중기로 광주시와 서로 '상생협력 약속'을 했다며 이차전지 분야의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도 소·부·장 특화단지, 이차전지 특화단지 신청서를 내지 않았던 반면, 광주시는

마감 당일 소·부·장 특화단지를 신청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광주와 전남은 한뿌리와 같은 도시로, 상생하고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최근 광주·전남 연구원 분리건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지역인재 차별을 두자는 것은 오히려 차별을 부추치고 지역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나주 출신 안세영 배드민턴 세계 1위 올랐다

풍암초·광주체중·광주체고 졸업  
한국선수 방수현 이후 27년 만에

나주 출신으로 광주체고를 졸업한 안세영(21·사진)이 세계 정상에 올랐다. <관련기사 22면> 지난 31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안세영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세계랭킹 포인트 10만3914점을 쌓아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10만1917점)를 제치고 2위에서 1위로 올라갔다. 한국 선수가 여자 단식 1위에 오른 것은 1996 애틀랜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방수현 이후 27년 만이다.

안세영은 올해 참가한 11개 국제대회에서 우승 7차례, 준우승 3차례를 달성했다. 나머지 1개 대회에서도 3위를 차지했다.

지난 3월 배드민턴 최고 권위 대회인 전영오픈에서는 1996년 방수현 이후 27년 만의 여자 단식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세영은 지난 23일 코리야오픈에서 생애 첫 대회 2연패에 성공했고 그 여세를 몰아 전날 일본오픈 우승으로 세계랭킹 포인트를 합쳤다.

나주시 이창동이 고향인 안세영은 아버지(안정현 나주체육회 사무국장)를 따라갔던 배드민턴 동호인 클럽에서 라켓을 잡았다. 아버지는 배드민턴에 소질을 보이자 나주 중앙초 1학년 때 광주 풍암초로 전학시켰다. 배드민턴 스타 이용대의 스승인 최영호 감독에게 본격적으로 배드민턴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2017년 광주체중 3학년 때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해 2018년부터 성인 대표팀에서 뛰었다. 이때부터 '서툰 천재'로 불렸다. 광주체고 졸업 후 곧바로 삼성생명에 입단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선운2지구 현장 등 LH 15개 단지 철근 누락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조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문제가 불거지자 전수 조사 등 철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것이다.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던 것으로 전남 드러난 바 있다. 문제의 단지는 광주 선운2지구를 비롯해 현재 건설중인 6곳, 파주운정 지구 등 입주 완료한 5곳 등 총 15개 단지이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경제보다도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이번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토부가 LH와 민간사업자 발주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는 기자 질문에 "대체로 그 정도 범위가 (조사 대상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2017년 이후 설계·시공된 아파트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전한 조폭 문신...판치는 불법 시술 ▶6면

굿모닝 예향 - 프랑스 파리 낭만 속으로 ▶18·19면



3위와 2.5경기 차...KIA, 순위 상승 '시동'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The new EQS SUV

당신이 찾던 럭셔리 미래.  
This is for pioneers.

MERCEDES-EQ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림로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E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4.3(도상: 4.5, 고속: 4.1) 1회 충전거리(km): 471, 공차중량(kg): 2355, 배터리 용량(kWh):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